

96.8.9

미성년자 윤락알선 무더기 구속

소개소 대표등 24명

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손진영)는 8일 생활정보지 등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(직업안정법, 윤락행위방지법 위반)로 김대현(21·놀이보도사무실 대표)씨 등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17명을 구속했다.

검찰은 또 미성년자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전봉희(33·0단란주점)씨 등 단란주점 업주 7명을 풍속영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.

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석촌동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

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이아무개(16)양 등 12명을 강남 일대 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해 소개비와 화대 일부를 챙겼다는 것이다. 송현순 기자